

# 이 폭염에...문 닫혀 있는 무더위쉼터 '무용지물'

## 광주 무더위쉼터 둘러보니

1591곳 중 85%가 노인시설  
상당수가 회원 위주로 운영  
일반인 눈치 보이고 이용 어려워  
쉼터 코앞 두고도 공원서 '혁혁'  
광주시 냉방비 3억 지원하는데  
공공성 취지 살려 접근성 높여야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광주시 북구 우산동 한 경로당의 문이 지난 9일 오전 11시께 잠겨있다. (왼쪽) 최고기온이 33를 웃돈 이날 300여m 떨어진 공원 벤치에는 어르신들이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살인적인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마련된 광주지역 '무더위 쉼터'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무더위 쉼터의 문은 닫혀 있고 광주지역 전체 85%에 달하는 무더위 쉼터가 경로당이어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탓에 시민의 발길이 닿을 수 없다.

12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광주 지역 내 무더위 쉼터는 1591곳에 달한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이 85%(1345곳)를 차지해 가장 많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광주지역 노인시설 10곳을 돌아본 결과 4곳만 출입이 가능했다. 그나마 2곳은 경로당 회원만 이용이 가능했다.

경로당 관리인이 자리를 비우면서 문을 잠그는 바람에 쉼터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시민도 눈에 띄었다.

실제 지난 9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한 공원 벤치에는 20여명의 어르신들이 연신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얼음물까지 췌겨온 어르신도 있었지만 33도까지 치솟은 찜통더위

에 어느새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불과 300여m 떨어진 곳에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이 있었지만 대다수가 이곳이 아닌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어르신들은 "경로당은 아는 사람만 가지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취재진이 찾아간 경로당은 문이 잠겨있었다. 관리인 연락처조차 적혀있지 않아 폭폭 찌는 날씨에 쉼터를 찾았던 이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 경로당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탓에 경로당 관리자가 자리를 비우면서 문을 잠그는 것이다. 주민센터나 금융센터도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있지만 많은 사람이 오가기 때문에 편히 쉴수 없어 시민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다.

김모씨(여·87)는 "경로당은 언제 열려있는지도 모르겠고, 들어가면 원래 다니는 사람들이 '왜 왔냐고 한다'며 "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잠깐이지 마음이 편치 않아 그냥 그늘에서 쉬고" 말했다.

광주시 북구 문흥동의 한 경로당은 앞 문은 잠겨두고 뒷문만 열려있던 구조를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용하기 어려웠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노인시설 중 1002곳은 회원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이 아닌 이들은 코앞에 무더위쉼터를 두고도 땀방에서 쉬어야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정부는 무더위 쉼터에 대해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누구나 이용가능한 시설과 회원만 이용가능한 시설로 구분해 표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광주지역 343곳은 누구나 이용가능한 시설이지만, 아파트 내부에 설치된 곳도 있어 관계자가 아니면 이용이 어려웠다. 아예 문이 잠겨 있는 경우도 있었다.

남구 방림동의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한 경로당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지정 돼 있었지만, 운영하지 않은 듯 문 앞에는 신문과 각종 우편물이 잔뜩 쌓여 있었다.

동구 산수동의 누구나 이용가능한 무더위쉼터 경로당의 경우 문이 잠겨 있었고 인근 주민들은 "오후 2시가 넘어야 문이 열린다"고 말했다.

결국 1000 여 곳의 무더위 쉼터가 지정돼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기후취약계층만 더 힘들어 지고 있다.

하지만 무더위쉼터 관리책임자들은 관리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경로당 관계자는 "경로당 회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도 "노숙자나 술취한 사람들이 들어와 화장실 등을 더럽게 쓰는 경우가 있어 관리자가 없으면 문을 잠글 수밖에 없

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 대책을 주문한다.

변원섭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은 "무더위쉼터 대부분이 회원들만 이용가능한 경로당인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결과"라면서 "폭염 취약계층이 어디든 편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3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더위쉼터 한 곳당 35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냉방비 외에 관리비·전기료 등 유지보수비도 일부 지원한다. 또 광주시는 광주지역 열대야가 이어짐에 따라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을 기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평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글·사진=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사업 실패 비판, 죽어서도 '서러운 모녀'

가족, 시신 인수 거부에 무연고자 공영장례식으로 처리

사업 실패를 비판하다 숨진 채 발견된 모녀의 마지막 가는 길도 쓸쓸했다.

12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최근 숨진 모녀의 장례를 무연고자 공영장례식으로 치렀다.

지난 2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북구 한 공터에 주

차된 외제차 안에서 A(여·73)씨와 B(여·5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인과 가족들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에서 지내는 모녀는 한때 요식업 사업으로 번창했지만 방문판매업으로 전환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모녀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재기를 노렸지만, 사업실패로 고통을 받았다고 지인들은 진술했다.

가족은 모녀의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에게 빌린 돈이 많았을 뿐더러 시신 인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돈이 들기 때문이다. 모녀는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돼 지난 9일 광주영락공원에서 화장됐다. /김다인 기자 kdi@

## 지리산서 곰 마주쳐 피하려다 바위 부딪혀 부상

지리산에서 '야생 곰을 만나 피하려다 다쳤다'고 주장하는 60대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12일 순천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차 안에 있는데 의식이 혼미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의 생명이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60)씨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구례군 토지면 지리산 문수사 인근 숲을 찾았다가 곰과 마주쳤고 도망치던 중 바위에 부딪혀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마와 왼쪽 뺨 등이 다친 상태로 구례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권유를 받고 병원 주차장에서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은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마약사범 잡은 '택시기사의 눈썰미'

횡설수설 승객 경찰에 신고...잡고보니 필로폰 추정 마약 소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30대가 택시기사의 눈썰미에 탐미를 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30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지난 9일까지 마약을 투약하고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가루약 등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9일 오전 9시 30분께 마약을 투약한 채로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목적지를 언저꾸 바꾸며 횡설수설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는 A씨를 태우고 상무지구대로 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며, 소변 등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차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바 있으며, 지난 7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